

송기숙 전남대 명예교수, 보상금 장학금 기탁



송기숙(79) 전남대학교 명예교수가 ‘교육지표’ 사건의 무죄판결을 받은 형사보상금 전액을 모교 후학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내었다.

19일 전남대학교에 따르면, 송 명예교수는 지난해 무죄판결을 받은 ‘교육지표’ 사건과 관련 불법구금된 기간에 대한 형사보상금(7367만7600원) 중 변호사수익료를 제외한 6962만5332원 전액을 대학발전기금으로 전달했다.

‘교육지표’ 사건은 1978년 6월27일 송 명예교수를 비롯한 11명의 전남대 교수가 국민교육헌장을 비판하는 ‘우리의 교육지표’를 공동으로 발표한 사건이다. 당시 ‘우리의 교육지표’에 서명한 11명의 교수는 긴급조치 9호위반으로 구속 및 해직됐으며 30여 명의 학생이 제적·정학당했다.

송 명예교수는 지난 1978년 발생한 전남대학교 교육지표 사건에 연루돼 379일 동안 불법구금 됐다가 35년 만인 지난해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다. 형사보상금은 당시 불법구금된 일수에 19만4000원을 곱한 액수이다.

송 명예교수의 가족들은 “이 돈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전남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써 달라”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장, 농협대 석좌교수에



농협대학교(총장 이재관)는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장을 석좌교수로 초빙했다고 20일 밝혔다.

순천출신인 소 교수는 대검찰청 형사부장, 대구고검장, 대전지검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김진태 현 검찰총장,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함께 검찰총장 최종 후보 3인에 들었다.

그는 현재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 중재재판관으로 있으며, 중소기업의 재법방지와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법무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로도 활동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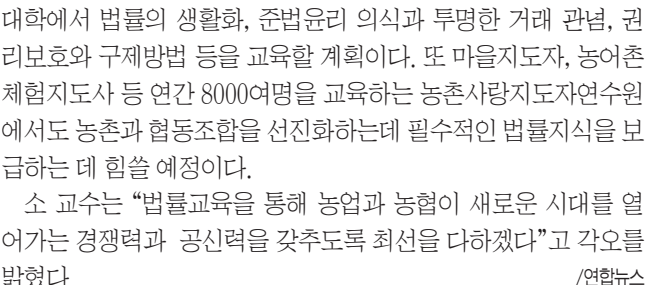
농협대 관계자는 “농협대는 법학과는 없던 법률소양 교육에 아쉬움이 있었는데 농협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 소 전 법무연수원장을 석좌교수로 영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소 교수는 앞으로 농협과 농촌의 미래지도자를 양성하는 농협대학에서 법률의 생활화, 준비윤리 의식과 투명한 거래 관념, 권리보호와 구제방법 등을 교육할 계획이다. 또 마을지도자, 농어촌 체험지도사 등 연간 8000여명을 교육하는 농촌사랑지도자연수원에서도 농촌과 협동조합을 선진화하는데 필수적인 법률지식을 보급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소 교수는 “법률교육을 통해 농업과 농업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경쟁력과 공신력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연합뉴스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육부장관 표창 전수식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20일 집무실에서 2013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은 우수기관과 유공자들에 대한 전수식을 했다.

우수기관은 삼정초(교장 김숙희)와 광덕고(교장 이인형)가, 유공자는 류영란(광주동운초)·김조아(빛고을초)·김미영(금구중) 교사와 안진홍 동부교육지원청 장학사, 손순희 광주시교육청 주무관 등이 받았다. 학부모 표창은 정혜숙(지산중)·김숙현(광주서석중) 씨가 수상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아웃도어 브랜드 ‘콜핑’ 경남본사 확장 이전

30년 언론인생활 성찰 담은 칼럼집 펴낸 김중남 광주·전남 언론인회장

“글은 소통의 통로...독자와 함께한 공감의 역사 엮어”



“내 글은 밥 먹고, 길 걸었는데 무슨 도움을 주었나? 순간이 지나 한 모금의 생수, 한 줍의 산소가 되었나?”

화두 같은 말이 예사롭지 않다. 어쩌면 글을 다루는 모든 이들이 한뼘쯤 새겨야 할 경구인지 모른다.

김중남 광주전남언론인회 회장(전 광주일보 편집국장)이 칼럼집 ‘글이 길인가’(엔터)를 펴냈다. 표지 제목 서체는 서예가 전병옥씨 작품으로 예세이집 분위기가 난다.

저자는 30년의 언론인 생활을 돌아보며 무엇을 남길 수 있을지 고민했다고 한다. 직업적 글쓰기가 아닌 성찰과 소통의 글쓰기를 지향한다는 의미다.

해방둥이인 저자는 올해 우리 나이로 칠순이다. 1971년 광주일보(옛 전남일보)에 입사해 2001년까지 언론인 외길을 걸었다.

지난 19일 인터뷰에서 저자는 칼럼집을 꺼내게 된 배경, 글에 대한 철학, 향후 계획 등을 담담하게 얘기했다.

“흔히 칼럼은 언제 썼느냐가 중요하다. 당시 상황과 시류에 맞춘 진단이기 때문이다. 그 때가 지나면 물레방아를 돌린 물처럼 힘을 잃는다. 심심하긴 글맛도 한물 간 맛이 된다.”

저자는 시의성을 감안해, 모든 칼럼마다 지금의 관점에서 느끼는 단상을 새롭게 첨가했다. 글의 첫머리에 덧붙여진 글들은 언론인의 시각보다는 생활인이나 자연인의 시각이 담겨 있다.

처칠 딱딱해지기 쉬운 글이 일상의 소소한 느낌과 맞물려 색다른 맛을 준다. 개개의 칼럼들이 새로운 의미로 해석되고 확장되는 이유다.

저자는 “다행히 세상 살이는 되풀이되고 역사도 되풀이된다”며 “옛글이 하늘을 거쳐 돌아온 물처럼 살아난다는 것”에 또다른 의미가 있다고 말한다.

책에는 광주일보 재직시절에 쓴 칼럼과 타 매체에 기고한 72편이 수록돼 있다. 모두 4부로 구성된 칼럼집은 1부 ‘왜 일기 안쓰니까’, 2부 ‘하루 2식으로 안될까’, 3부 ‘애작도를 아십니까’, 4부 ‘뿔뿔산에 바람이 분다’ 등 일상의 소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마디로 언론인의 머리와 생활인의 가슴으로 쓴 글이다. 칼럼의 기저에 흐르는 핵심 키워드는 ‘글’이다. 정확히 말하면 ‘글쓰기의 생활화’다. 지난 삶을 돌아볼 수 있고, 현재의 나를 객관화할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가 글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로 글로 쓰면 길이 보인다. 고민이 있어 고통스러운 사람은 그 고민을 글로 써보라. 그 글이 만든 길을 걷다보면 만사가 풀린다.”

저자가 ‘글쓰기 생활화’를 강조하는 것은 현장 체험에서 비롯되었다. 2007년부터 (사)무등사랑인재육성아카데미에서 글쓰기 특강을 하며 깨달은 것이란다. 글쓰기 고민은 취업준비생만 할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책 뒤편에 수록된 저자의 ‘글쓰기 연보’는 이 같은 주장을 방증한다. 광주서중 2학년 때 수학여행 기행문을 시작으로, 기자시절 미국 미주리대학 연수, 광주비엔날레 사무총장 재직시절 칼럼 등 다양한 글쓰기가 현재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한다.

“하루살이 글쟁이가 아닌 ‘하루 역사가(歷史家)’로 살고 싶었다”는 저자의 바람이 이해되는 대목이다. 향후 계획을 물었더니 돌아온 대답 역시 글쓰기로 집약된다.

“글은 비싼 성형으로 얼굴을 다듬지 않고도, 크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갖지 않고서도 상대를 설득, 감동시킬 수 있다. 앞으로도 일상을 토대로 한글을 통해 많은 이들과 소통하고 싶다.”

흔히 칠순은 마음 가는 대로 해도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뜻의 ‘종심’(從心)으로도 불린다. 정도를 벗어나지 않되 붓 가는 대로 펼쳐보일 저자의 글쓰기가 기대되는 건 이 때문이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아웃도어 브랜드 ‘콜핑’ 경남본사 확장 이전



정통 아웃도어 브랜드의 선구자 ‘콜핑’(회장 박만영)이 20일 경남 양산시 주남동에 있던 본사를 덕계동으로 확장 이전했다.

3만3000㎡의 터에 들어선 신사옥은 2만3000㎡의 대형 물류센터와 지상 2층, 지하 1층의 사무실 건물로 이뤄져 있다.

이날 열린 신사옥 확장 이전식에는 박 회장과 국내 산악계 주요 인사, 콜핑 전속 모델인 배우 송승헌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박 회장은 기념사에서 “본사 확장 이전은 국내 톱5 브랜드 및 글로벌 브랜드로 거듭나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더 뛰어난 제품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1983년에 설립된 톱종 아웃도어 브랜드 콜핑은 초기에 텐트를 생산해 수출하다가 2004년부터 종합 아웃도어 업체로 변신했으며 국내에 350여 개 매장, 중국·미국 등지에 40여 개 외국 판매망을 확보하는 등 대표적인 국내 아웃도어 업체로 성장했다.

20일 열린 콜핑 신사옥 확장 이전식에서 박만영(가운데) 회장과 전속 모델인 배우 송승헌(왼쪽에서 세번째) 등이 기념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콜핑 제공)

대표적인 국내 아웃도어 업체로 성장했다. 지난해 매출 2000억원을 달성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송원대 - 한국ICT융합협동조합 산학협약



송원대학교(총장 최수태)는 지난 19일 한국ICT융합협동조합(이사장 김창식)과 중소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산업발전 및 상호 공동발전을 위한 산학협약식을 가졌다. (송원대 제공)

호남대 함가연서, 구찌 장학생 선정



호남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함가연(3년·오른쪽 두번째)씨가 2014학년도 한국장학재단의 희망드림장학금 구찌(GUCCI) 장학생으로 최종 선정됐다. (호남대 제공)

인사
◆전남대
▲의과대학장 신부안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ಯ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화곡

▲조영권(곤지암고 교사)·최승노(곤지암초 교사)가 장남 원혁군 장형래(TBN한국교통방송 전 편성제작국장)·오정숙씨 장녀 가원(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양=29일(토) 오후 5시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웨딩홀 02-880-0300.
▲허형권(광주 법무사)씨 장남 옥근 원연준씨 장녀 지희양=22일(토) 낮12시 30분 광주 수아비스웨딩컨벤션 2층 크리스탈홀.

동창동문회

▲광주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 39회 동창회=29일(토) 오후 6시 광주 동구 계림동 금수장 관광호텔 010-9473-2991.

중친회

▲합평 이씨 광주중친회 정기총회

=30일(일) 오전 10시 광주 서구 상무중학교 010-4951-4986.
▲고령 신씨 전남서부·광주총회 정기총회=29일(토) 오전 11시 광주 서구 화정동 광덕고등학교 2층 회의실 010-7322-4938.
▲경주 배씨 광주중친회 제36차 정기총회=22일(토) 오전 11시30분 광주시 동구 대인동 우리회관 010-9601-5423.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 사용자 062-1366.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미혼 부모상담 및 입양상담 24시간, 위탁가정 상담, 입양가족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입양가족 자조모임 운영 062-222-9349.
▲대한사회복지회 우리집=미혼부모상담 및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 안내, 학생미혼모 단거위탁교육

기관으로 학력 인정, 무료의료지원 및 속식보호 062-232-1313.
▲‘금영컨설팅’ 채권·채무·재테크 무료 출장 상담=다중 채무·개인회생 및 파산 안내, 사업자 및 개인 채권 서류 검토 작성 대행, 채테크 절세 방법 상담 010-6392-4585.
▲장애아동통합교육보조원사업단=저소득층 주간에 특수교육실무사 기술 교육 및 공동체 교육을 통해 양질의 전문 인력을 배출하여 경제적인 자립 기회 제공, 광주 서구지역 초·중·고등학교의 장애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 적절한 교육 및 학습 환경을 제공하여 사회화의 장애우 및 장애아동의 삶의 질 향상 기여.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2-3029.
▲가시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장애인(1~3급), 중증질환자 등 타인의 도움이 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가사지원 및 간병서비스를 제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

351-3029.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혼자 힘으로 일거 외출이 어려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가사 및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모집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전문가초청공개강좌 강사 이문인 다사랑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금연 일문일답 22일 오전 10시30분~12시 광주 북구중독관리센터 4층 062-526-3370.
▲판문화 아카데미(원장 조대호)=만화기초수업 초등학생부·중학생부·고등학생부·일반부·취미반 수시 모집(원장님 1:1개인지도), 남구 방림동 샘신희 3거리 070-4065-5054, 010-8947-3006.
▲사단법인 효사랑봉사단은 돕고 교육에 관심있는 회원 교육생 모집.

매주 금요일, 062-369-1230.
▲전통문화 보존 연구회=한문·예절·다도·시조 등 우리 전통문화를 쉽게 익히고 배울 수 있는 회원 선착순 모집. 북구 중흥 3동 동사무소 맞은편 062-268-5588, 010-9440-2512.
▲광주물세 클럽 수영 동호회원=수영 무료로 지도해주며 30세 이상, 북구 거주자 환영 011-602-2278.
▲씨초크 레저스포츠클럽 동호회 회원=페어링라이더, 행글라이더, 윈드서핑, 수상스키, 제트스키 등. 062-675-8722.
▲광주씨 생활체육아우팅연합회 사회인 야구팀 ‘엑스칼리버’ 팀원=야구에 관심과 자질 있는 30세~40세의 사회인(특히 투수, 포수) 011-609-9943, 010-2611-7787.
▲맘보유엔터 살사동호회 회원=라틴댄스·살사 등. 010-5136-0028.

부음

▲육영자씨 별세 고광휘·광범·광

선·광조·광심·영순씨 모친상 박성호(남도일보 사장)·김대진씨 병모상=발인 22일(토) 목포 중앙병원장례식장 061-271-4444.
▲신중순씨 별세 이종우·중연씨 모친상=발인 22일(토)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유계중씨 별세 동성(동부경찰

謹 상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p>102호故강동수남(남/68세) 子/子婦: 강진영/김호진, 인영/임미영 女: 강소영 ●호 실: 102호 ●장 지: 영락공원</p>	<p>201호故김순애남(남/97세) 孫: 문달주 子婦: 양원희 女/婦: 문영순/윤성태, 명순/민병진, 명숙/황찬연 ●호 실: 201호 ●장 지: 영락공원</p>
<p>301호故정삼애남(남/83세) 子/子婦: 양원일/최혜연, 준호/서정아, 준환/김정미 ●호 실: 301호 ●장 지: 영락공원</p>	<p>401호故하덕현남(남/56세) 夫君: 이경화 子: 이준규 女/婦: 이연숙/박일묵, 연지 ●호 실: 401호 ●장 지: 영락공원</p>

101호故류익석남(남/80세)
子/子婦: 류재수/임귀빈, 재갑/김정순, 재남/노영옥, 재식/조인주, 재운/김류드림라 未人: 정순남
●호 실: 101호 ●발 인: 3월 21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5

孝 마음까지 편안함
금영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